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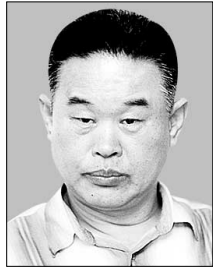
최근 전방부대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참혹하게 꺾어버린 20대 초반 젊은 아들들의 아까운 인생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이 나라가 싫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는 절규가 어찌 몇몇 부모님들만의 심정이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두고 여러 조사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육군당국은 사건을 일으킨 병사의 군 부적응과 심리장애가 사건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발표했다. 유가족과 사회일각에서도 사건의 비정상적인 인성과 심리적 장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전문가들은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이상(異常)심리-리셋(reset)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음에 안 맞으면 확 판을 깨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일컫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의 원인이 단순히 우발적인 충동이나 병영문화의 전 근대성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의 심리적 특성, 지식정보화사회의 심리적 특성과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기난사



불자 세상보기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

수류탄 맞은 '인성교육'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고찰되고 처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사고자가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리적 기제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현상으로 보편화되고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군대 부적응 병사들이 17%를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과 인격모독을 수반하는 병영문화의 전 근대적인 부조리는 어느정도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성의 문제, 인성교육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병영문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자가 좀 더 자제력 있고 통찰력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회피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위는 극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로 환원되는 보편적 과제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인간성, 인간적 가치를 증득할 수 있는 적절한 인간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이 시대 사회구조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은 거의 자기 제어장치를 갖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거의 포기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거의 포기하고 마을에서 어른들이 사회적 훈육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 허점을 사이버 문화가 점령해가고 있다.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를 대체하고 기계적인 원리가 인간적인 윤리를 대체하고 가상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를 대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미 비(非)인간화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 사회가 비인간화의 폭류 속에서 휩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신물·이혼물·낙태물이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인간성 회복, 인성교육 회복. 이것은 결코 낮은 구호가 아니다.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 불교가 밝고 밝고 나서야 할 긴급한 시대적 화두인 것이다. 이것 말고 달리 길이 없지 않겠는가?



불자의 눈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가 창립 일주년 기념법회를 가진다. 또 열린우리당 불자의원 모임인 이타회가 창립법회를 했다.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불자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활동이 이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정치가 잘되고 못되느냐가 국민의 행복과 고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불교적 이념을 정치에 올바르게 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불자들의 활동이야말로 불교적 이념을 정치에 반영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약한 것은 불교계 전반에 걸친 정치적 의식과 조직적 활동의 취약성 때문이다. 단지 정치인 불자들을 규합하는 것으로 정치를 통해 불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조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불교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치적 이념을 창출해 정치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불교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올바른 정치

여의도에 연꽃 심는 의원 되길

인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이 일반화돼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정치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틀도 갖출 수 있다. 불자정치인들의 활동이 힘을 얻고 조직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여건이 풀고루 성숙되어 나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시발점은 역시 정치인 불자들의 자각과 단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불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응답을 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이 제시되고, 불교적 이념을 각 당의 정치적 이념과 조화되는 정당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자 정치인들의 친목단체이거나 불교계의 직접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창구가 아닌, 진정한 불자 정치인들의 모임을 이상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타대선이 우선되는 현실의 정치풍토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큰 이상을 향해 나갈 때 오히려 작은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말로, 새로운 전기를 추구하는 정각회와 새 출발을 하는 이타회에 헌만 불자들의 기대와 격려를 전한다. 교계에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범 종단적 정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고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기에.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열광 열풍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어 꽃이나 향으로 보호되고 있다. 온갖 오물이 가득차 여기저기서 흘러나 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훌륭한 것으로 알고 또 남을 업신여긴다면 그는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숫타니파타>

최근 대형 로펌 등 변호사 업계도 '외모'로 채용한다는 기사가 났다.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증가하면서 대형 로펌이나 소규모 법원 사무소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변호사를 골라 채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신보다는 외형이나 물질이 중시되는 사회라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하기위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감각적 유혹에 사로잡혀 중심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을 지녀야 할 이들이 아닌가? '변호사 업계에 불고 있는 열광 열풍'이라는 말이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하루하루 수많은 어처구니없는 사건 사고 소식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온다. 취재중 산중사찰에 있는 어느 스님이 "모두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 반대로 향하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제 우리는 과연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 말씀처럼 온갖 오물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단지 꽃이나 향으로 보호되어 있을 뿐이다.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었던 한 여성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히 떠오른다. 수많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잃어버린 가여운 여성이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향을 맡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할 때다. ■ 배지선(대구 주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폐단 너무 크다 '공감'을 잃고

"임명권이 교구본사에 있으니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선거를 하니 부정부정 선거라니!"

종단의 정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이 나라의 정치 행태를 칭찬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종단은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달리 세속법을 따라 가며 세속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행태를 낱마다 바꾸어도 정치 행태인과 국민의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아무 소용없듯이 종단이 세속법을 따라 정치 행태 제도를 바꾼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행자에게 바른 세상과 바른 수행력이 없다면 제도란 한낱 공명불일 뿐인 것일." <아함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원로는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둘째 제반 현상을 인과 관계로 분석하는 능력, 셋째 말씀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넷째 제반 현상을 경험적으로 인식 분석하는 능력, 다섯째 제반 사상을 시대에 맞게 정정하고 활동력으로 처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원로를 뽑고 있는가. 나는 가톨릭에서 교황을 뽑는

법을 보고 무척 부끄러웠다. 종단은 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 없이 원로를 뽑겠지만 부처님이 안 계신 오늘날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원로를 뽑아야 할 것이다. 예전에 없었던 행태의 수장은 이러한 능력에 행태 능력까지 포함해서 뽑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을 어떻게 뽑는 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상과 수행력과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자질론적 입장에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질론이 불교의 전통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자질이 있는가를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두 손 모아 발원하오니 수행자는 세속법을 따르지 않으며 부처님 법을 따라 세속에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자.

홍범 스님(광명 보현사)

장애인과 함께 할 공간 만들어야

장애인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들은 늘 느리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자

증을 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불교신문에 531호 실린 주몽재활원 은재의 이야기는 장애는 병이 아니라 단지 불편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생각해보면 장애는 사실 그리 드문 일만은 아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10% 이상이 각종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과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우리 마음의 자세일 것이다. 장애인들을 우리가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을 비틀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전까지 장애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MBC에서 장애인 오라프로그램의 MC로 내세우는 등 그들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제 불교계에서도 장애인 포교에 신경써야 한다. 그들에게도 감로수 같은 법문을 공급할 기회를 불교계에서 솔선수범해 제공해 주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갈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 유준식(예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연대' 민평

심민섭



Bt<sup>n</sup> 불교TV

불교TV 와 함께하는 백두산·북경·만리장성 성지순례

2005. 7. 7(목) ~ 7. 12(화) 5박 6일 일정 금액 1,080,000 원



지도법사 김용사 외주 자랑스님

7월 7일

- ★ 장춘 도착 - 위황궁, 영화 촬영소
★ 연길 - 백두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7월 8일

- ★ 백두산 등정(짚차)천지장백폭포, 소천지, 자연온천 관광
★ 온천욕 체험



7월 9일

- ★ 백두산을 출발하여 이동중 자연 박물관 관광
★ 용정으로 이동 후 윤동주 시비, 해란강, 일송정 원경 관광
★ 두만강, 북한 남양시 원경 감상



7월 10일

- ★ 천안문 광장
★ 자금성 ★ 경산공원
★ 서태후의 여름별장 '이화원'
★ 서커스 관람



7월 11일

- ★ 만리장성(케이블카)
★ 용경협(유람선) ★ 명 13릉 관광
★ 발맞사지 체험



7월 12일

- ★ 왕부정 거리 관광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4525

www.btn.co.kr